

日本史 속의 건물과 도시(2)

Buildings and Cities in Japanese History

趙仁淑 / 다리건축
by Cho, In-Suk

— 목 차 —

1. 개관—원시시대
2. 제례의식, 불교건축
3. 都邑
4. 住居와 조경
5. 사무라이 文化와 쇼잉(書院) 茶室과 스기야(數奇屋)
6. 城의 時代
7. 에도(江戸)—‘空間’과 ‘場’으로서의 江戸시대
8. 民家
9. 근대건축의 태두
10. ‘전통’의 재고, 현재속의 과거

초기일본문화(계속)

야오이(彌生)시대의 사회적 배경을 좀 더 부연하자면 이리하다. 농업이 사회의 지배적인 생산형태가 되면서 토지는 본래와는 전혀 다른 의미를 지니는 ‘재산’이 되었다. 처음에는 씨족공동체의 소유였으나 생산의 급속한 발전과 함께 생산물을 관리·분배하는 등의 공공의 사무가 많아지고 복잡하게 되었고 한편 여러 씨족들이 농업에 알맞는 토지를 찾아 끊임없이 치열한 전쟁을 벌이게 되었고 그것은 부족전쟁으로까지 확대되었다. 그러는 가운데 전쟁의 지도자들은 점점 권위가 높아졌다. 또한 항상 신(神)에게 제사를 올리고 신의 가호를 기원하는 것은 씨족·부족 공동체에서 가장 중요하고 신성한 일이었기 때문에 司祭者의 권위도 높아졌다. 사제자는 씨족의 중심인 어머니나 그의 직계딸이 되는 것이 통례였다고 생각되지만, 생산과 분배의 관리자와 군사지도자는 대체로 남자가 뽑혔던 것 같다. 이러한 공동체의 지도자는 야오이(彌生)문화 중기에 생겼다. 족장의 氏人에 대한 권력과 권위의 증대와 여러 씨족·부족적 집단 사이의 지배·종속 관계의 발전은 상호작용하여 계급분화와 대립이 점점 커지게 되자 국가가 정립되기 시작한다. 그리고 여러 국왕들의 지배영역을 확대하려는 강렬한 욕망에 사로잡혀 서로 전쟁을 거듭하게 되고 2세기경에는 중국의 史書에 ‘倭國이 크게 어지럽다’고 쓰일 정도로 사제가 발전하고 3세기경에 야마타이(邪馬臺)라는 나라가 발전한다. 이 나라는 大國으로 정치적인 합병과 영토권을 수렴하는데 있어 일종의 혼란이 생겨

원래는 남성이 지배하였지만 히미코(卑彌乎)라는 여자를 왕으로 삼게 된다. “히미코(卑彌乎)는 마술적인 힘이 있어 사람들을 사로잡았다. 늙도록 결혼을 안하고 있었으며 남동생이 통치를 도와 주었다. 그녀가 통치를 맡고난 후 그녀를 실제로 본 사람은 거의 없고 1,000명의 여시종과 단 한 명의 남자시종이 있었는데 남자 시종이 음식이나 마시는 것들을 시중들고 대화의 창구역할을 해 주었다. 그는 탐과 말뚝올타리로 둘러싸인 성(城)속에 살면서 무장된 군인들을 두어 조금도 경계를 게을리 하지 않았다”¹⁾

히미코(卑彌乎)의 권력은 분명히 종교적이고 마술적인 힘에 근거하지만 아마도 동북아시아의 샤머니즘(shamanism)으로부터 유래된 듯 하며 이는 초기 일본사회에 널리 전파되었던 것으로 알려져있다. 神話에 의하면 日本에서의 지배왕조는 태양신 아마테라스(天照らす)로부터 비롯된다. 이는 최고의 神이요, 신도의 萬神殿의 神이요 정당하게 선발된 神이다. 히미코가 통치했던 야마타이(邪馬臺)라고 하는 곳은 사실상 어디였는지 분명하지 않다.

1. 도리이(鳥居)의 기원과 신도(神道)

신도(神道)라고 하는 말은 원래 ‘신(神)들의 길’이라는 의미가 있다. 신도(神道)에서 中心이 되는 것은 가미(神)인데 가미라는 말 자체는 단순히 ‘위’(upper나 above)라는 의미를 암시하는 것이지 어떤 초월적인 힘을 나타내는 것은 아니다. 또한 신도라는 것이 世上에 존재하는 것에 관련된 것이지 종말론이나 死後세계에 대한 것이 아니므로 가미(神)또한 살아있는, 움직이는 그 어떤 힘에 관련된다.

신도(神道)에서는 청정식(淸淨式 purification)이나 제계식(齋戒式, lustration)이라는 것이 가장 중요한 행사로 예배자나 사제간에 행해지는 주된 행위이다. 신도에서의 청정의식으로는 두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외적인 것이고 다른 하나는 내면적인 것이다.

갯사이(潔齋)라고 하는 외적(外的)이며 물리적인 청정은 대개 예배자들이 하는 것으로 신사(神社)를 방문하면 입과 손을 물로 씻음으로써 청정하게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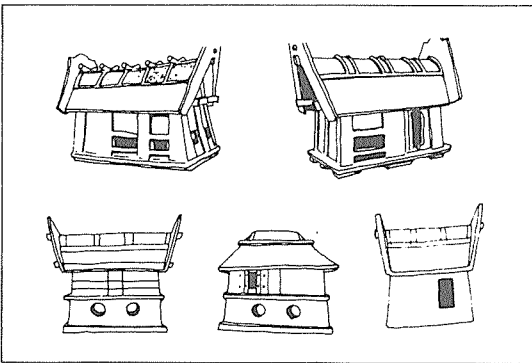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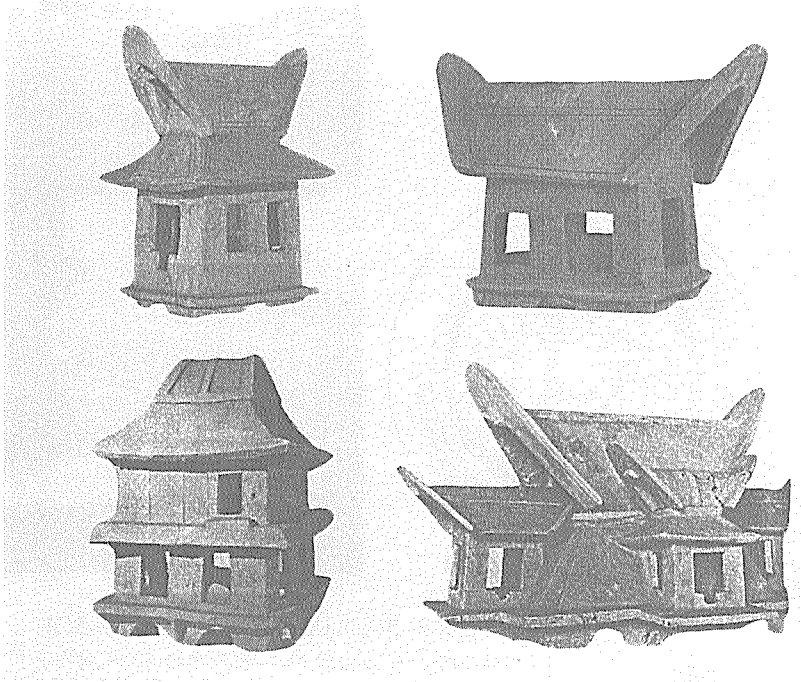
하라이(禊)라고 하는 내면적인 청정은 오로지 사제를 보호하는 것으로 사제가 지팡이를 흔들며 표시한다. 그가 신자를 청정하게 해주면 그의 영혼은 원래의 자연으로 돌아간다는 것을 의미한다.

신도(神道)전통에 무수한 신화가 있지만 특히 고지끼(古事記)와 니혼쇼키(日本書紀)에 기록된 창조에 관한 이야기를 보자.

이자나기노미고또(伊弉諾尊)와
 이자나미노미고또(伊弉由尊)라고 하는 자매신이
 부류하는 땅을 만드는 것을 배우자 조그만 섬을
 만들게 된다. 그들은 하늘다리를 통해 그들이 만든
 섬으로 가게 되고 거기서 많은 신(神)들을 자식으로
 두게 된다. 불의 신(火)을 만들다가 이자나미가 크게
 화상을 입고 지옥으로 떨어진다. 오르페우스와
 유리디체의 전설처럼 이자나기가 이자나미를 데리러
 가는데 갑자기 그의 몸에 구더기가 들끓어 물가로
 가서 그의 몸을 씻는다. 그때 그는 한 무리의 새로운
 신(神)을 만들게 되는데 이중에 왼쪽눈을 씻을 때
 태양신이 나오고 코를 씻을 때 폭풍의 신(神)이
 만들어진다. 태양신은 높은 하늘을 지배하기로
 약속받고 신도(神道) 萬神殿에서 최고의 신이 되며
 그의 오빠 수자누는 바다를 지배하게 된다. 수자누는
 여동생 태양신에게 안녕을 고하려고 하늘로 간다.
 수자누는 궁전을 부수는 등 온갖 못된 짓을 하자 화가
 난 태양신은 그녀의 몸을 동굴에 숨겨 온 세상을
 어둠으로 만들어버린다. 그러자 그녀를 밖으로
 나오게 하기 위해 다른 신(神)들이 떠들썩한 잔치를
 벌여 동굴앞에서 그 시작을 알리기 위해 장대끝에
 새를 얹었다. (도리이(鳥居))태양신의 호기심이
 발동하여 밖으로 나오게 되고 세상은 빛을 회복하게
 된다. 소위 말하는 암굴(“Rock cave”)이야기 가운데
 도리이(鳥居)는 역사이래로 신사(神社)의 입구가
 되어 모든 신사 및 조그만 시골의 神社에서도 볼 수
 있게 된다. 또한 태양신은 손자 니니기를 “풍요로운
 곡식의 땅(日本)에 보내면서 왕위의 상징인
 청동거울, 칼, 곡옥(曲玉)등 중국에서 건너온 희귀한
 보물을 준다. 이러한 보물들은 야요이 중기부터 무덤
 부장품으로 발견되는데 지배자 계급의 권위의
 상징으로 쓰였다. 특히 청동거울은 최소한 2차
 세계대전말까지만 해도 태양신 그 자체를 나타내는
 것이라 믿어졌었다. 전설에 의하면 그것은
 이세(伊勢神宮)에 두었다고 하는데 이는 황제가
 그것을 궁전가까이 두자 뭔가 편하지 않은 일이 생겨
 그렇게 했다고 한다. 그때 이래로 이세(伊勢神宮)의
 최대의 의무는 왕위의 상징인 거울을 그곳에 두는
 일이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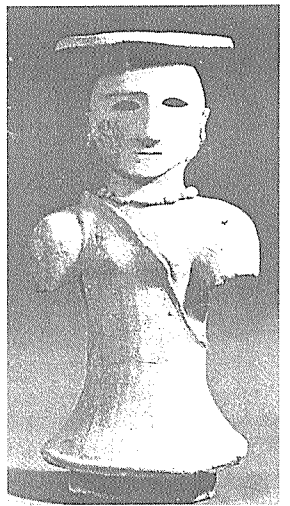
2. 이세(伊勢神宮)

300년경 고큰시대(古墳時代)라고 하는
 초기왕국으로 들어가게 된다. 이 시대의 가장 중요한
 미술품으로는 하니와(埴輪, 土俑)라고 하는
 테라코타로 만든 형상으로 사람, 동물, 집모양 그리고
 배모양의 것들이 있다. 초기의 하니와(埴輪)는
 단순히 원통형이었으나, 나중에는 死後의 세계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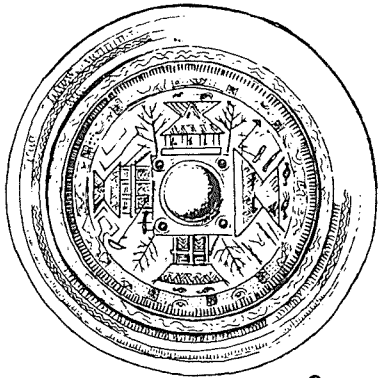


새로이 창조하는 이미지들을 통해 살아있는 것이나
 일반적인 물건들을 묘사한다. 무속적(巫俗的)인
 여자형태 말고는 대개의 하니와(埴輪)는 아주
 세속적인 모양을 하고 있다. 혹자는 이 모습이 초기
 일본인들을 그대로 표현한 것이라 하는데 어쨌거나
 이 하니와들은 미학적으로 볼 때
 야요이(彌生)토기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日本을
 나타내는 훌륭한 예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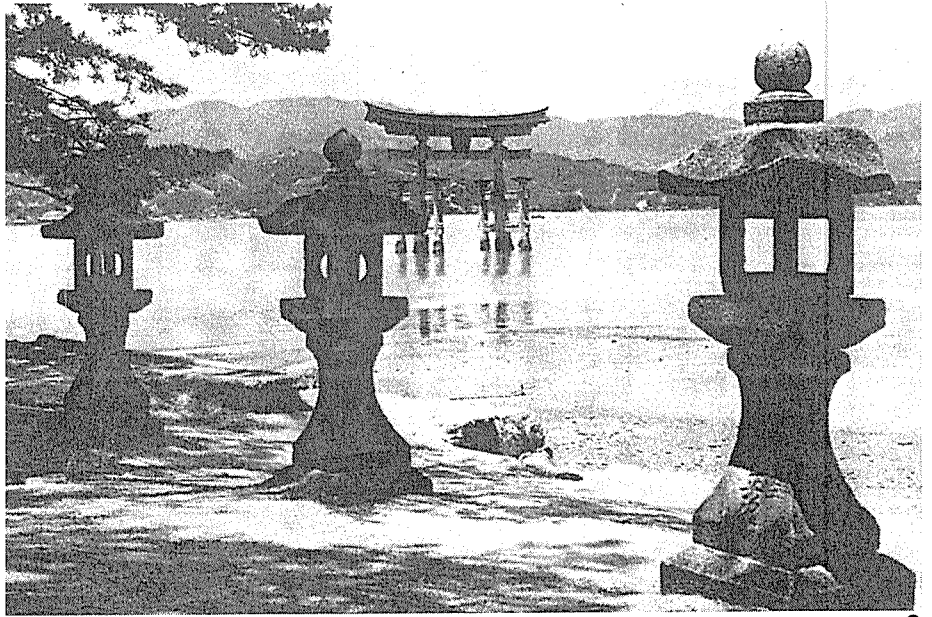
4백년경에는 장례부장품들이 바뀐다. 5세기경이
 되면 좀더 실용적인 도구나 철기등의 물건들이
 늘어나는데 중요한 것은 무사(武士)나 말의
 하니와(埴輪)이다. 5세기의 왕조는 6세기초를
 지배했던 왕조에 의해 밀려나게 되고 6세기 중엽에
 마지막으로 왕조의 변천이 일어나게 된다.
 태양신에게 있어 대표적인 기념물은
 이세(伊勢神宮)이다. 이 집은 왕위의 상징인
 동경(銅鏡)에 나타난 태양신의 이미지가 들어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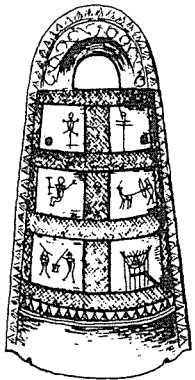
- ① 집모양 하니와(家形埴輪)
 (日本美術史 p. 28)
- ② 家形 埴輪(What is Japanese
 Architecture p. 55)
- ③ 巫女 하니와(Japanese Culture
 p. 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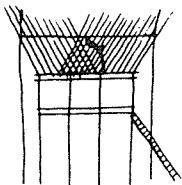
4



7



5



6

- ④ 청동거울(銅鏡)
IC경 나라현(奈良縣)寶塚古墳出土,
'家屋文鏡'
(What is Japanes Architecture p.55)
- ⑤ 銅鏡
- ⑥ 디테일
단독주택, 유일한 묘사자료
(What is Japanes Architecture p.55)
- ⑦ 도리이(鳥居い)
(Japanese Culture p.11)

이세神宮은 삼(杉)나무를 그대로 사용해 만들었고 자연상태로 잘 보존된 아주 좋은 예이다. 이 神宮은 20년마다 옆 땅에다 새로 지어서 보전을 한다.(최근 새로 지은 것은 1973년이다.) 이 독특한 관습은 아무도 왜 그런지를 확실히 알지 못한다. 아마도 나무의 신선도를 유지하기 위해 그런다고 한다. 고상식(高床式)바닥과 박공지붕, 용마루의 치솟음 등은 신도(神道)건축의 극치를 보여준다. 이런 형태의 건축물은 도다꾸(銅鐸)라고 알려진 야요이(彌生)중기 청동종에 새겨진 線의 그림들로 거슬러 올라가기도 하고 고훈(古墳)時代의 부장품인 집모양의 하니와(家型埴輪)까지 거슬러 올라가기도 한다. 이 형태는 때로는 '창고식 건축물'(구라(藏))이라고도 불리운다.

이세(伊勢)건물에 보이듯이 구조가 아마도 맨 처음에는 곡물창고로 쓰여졌기 때문이다. 나중에는 똑같은 구조의 건물이 궁전이나 신궁(神宮)에도 쓰여졌다고 믿어진다.

3. 기둥(柱, the Pillar)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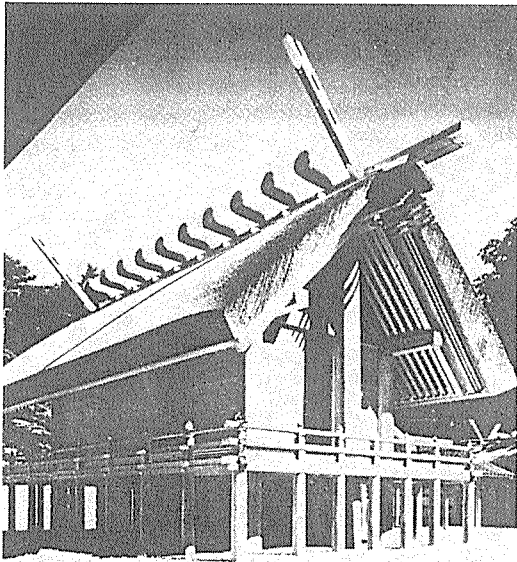
고지끼(古事記)나 니혼쇼끼(日本書記)에는 또한 이자나기(伊弉諾尊)와 이자나미(伊弉圓尊)가 어떻게 아메노미하시라(天之御柱)하늘기둥을 세웠는지에 대한 신화가 있다. 사실상 그 기둥이 어떤 모양이었던지는 확실하지 않다. 기록에는 두 신(神)이 오노고로 섬에 내려와 하늘기둥(天柱)을 세우고 야히로도노(八尋殿)를 만들었다고 한다. 문자 그대로 본다면 그 기둥은 두 신이 결혼식을 올린 八尋殿에 있는 것이 아니라 따로 서있는 기둥이었다. 니혼쇼끼(日本書記)에는 또 이자나기(伊弉諾尊)가

딸 중의 하나인 태양신 아마테라주 오오미카미(天照大御神)를 하늘로 보낸 얘기도 있다. "하늘과 땅이 미처 분리되기 이전에 이자나기는 하늘기둥(天柱)을 통해 땅을 내려보냈다."³⁾ 만일 그 기둥이 야히로도노(八尋殿)⁴⁾안에 있었다면 구조적 측면에서 볼 때 수평부재를 받치고 있었을 것이며 그 부재위로 연장되기가 어려웠을 것이다.

재미있는 것은 기둥하나만 세워놓는 관습이 아직도 남아있는 곳이 있는데 그 중 나가노현(長野縣)의 수와(諏訪)神宮이 있다. 수와 神宮에는 네가지 구획이 있는데 가미수와(上諏訪)의 모토미야(本宮)와 마에미야(前宮), 심모수와(下諏訪)의 하루노미야(春宮)와 아키노미야(秋宮)이다. 각각에 커다란 네 개의 둥근 기둥 혹은 옴바시라(御柱)가 있다. 이 기둥들은 각 구획의 네 귀퉁이에 세우는데 대개 12~17m 높이에 밀둥지름이 약 70cm되는 큰 기둥인데 7년마다 새 것으로 갈아 세우므로 수와(諏訪)의 기둥축제는 유명하다. 기둥을 세웠던 이유가 그렇게 분명하지는 않지만 기둥 그 자체가 예배의 대상이었을 가능성이 높다.

단독기둥 뿐 아니라 건물에 집어넣어 중요한 의미를 부여했던 기둥들도 있다. 대표적인 예로는 미에현(三重縣) 이세(伊勢神宮)와 시마네현(島根縣)의 이즈모(出雲神宮)이다. 이 두 神宮에는 신노미하시라(神の御柱)라는 신성한 중심기둥(心柱)이 있다.

신도(神道)기록에 伊勢의 神宮중에 이 心柱에 대해 이렇게 써 있다. "心柱(神の御柱)는 모든 것의 기원이며, 황제의 생명이며, 국가의 기원이며, 부(富)의 근원이며, 영원불멸의 것이다." 사실상



8

지금까지도 이 心柱는 숭배의 대상으로 神宮을 새로 지을때마다 특별축제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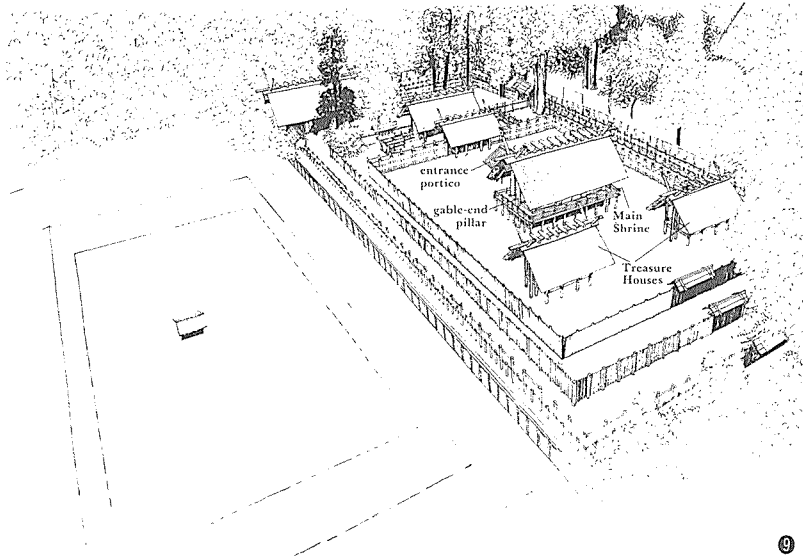
神聖화된 기둥이 神宮의 일부가 아닌 경우도 많이 있다.

‘임바시라(齋柱, Purified Pillar)’라고 하는 용어는 오토노호카이(大の祝い)라는 제례속에 새집의 안전을 기원하는 신도들이 제공하는 데서 볼 수 있다.

기둥의 중요성이 神이나 人間을 세는데 ‘기둥’을 사용함으로써 더욱 확실해진다. 왜 수를 세는데 쓰였는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다. 세계적으로 볼 때 원시조각은 人間の 형태를 묘사하여 하니와(植輪)나 고끼시(둥근목각인형)를 포함해 대체로 원통형으로 만들었는데 그것은 원시인들이 人間の 모습을 그려내는 흔한 방법이었다. 그래서 ‘기둥’이란 용어로 사람을 세는 것이 이러한 지각작용의 자연스런 발로였다. 사실상 기둥은 처음에는 사람을 세는 말로 쓰이다가 나중에야 비로소 神을 세는데 적용되었다. 특히 불교에서는 부처 그 자체 보다는 불상을 세는데 훨씬 자주 사용되었다. 기둥은 단지 일본에서 뿐 아니라 많은 古代人들 그리고 세계적으로 원시종족에게까지 중요하다. 신석기 시대에는 멘히르(Menhir, 선돌), 이집트의 오벨리스크, 인디아의 슈탐바(memorial Pillar), 중국의 후아빠오(華標, 성이나 주택, 무덤의 문에 세우는 기둥), 그리고 북미인디안의 토렘폴(the totem pole)등이다.

기둥으로 건물의 진수를 보는 것은 건물을 내부공간으로서만이 아니라 꼭 찬 그 무엇(material object)으로 인식하는 것이다.

(제례의식과 불교건축은 다음호에 계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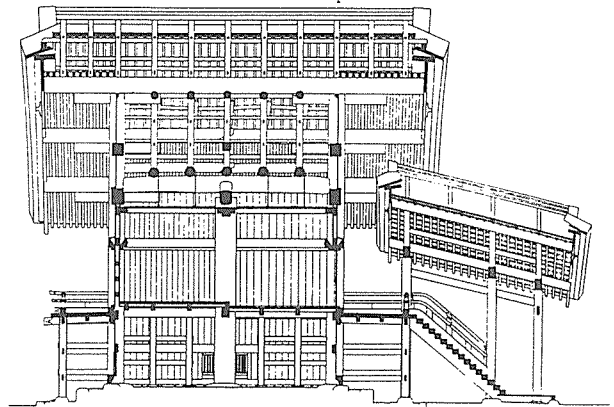


9



10

- 9 伊勢神宮 (Japanese Culture p.15)
- 9 伊勢神宮 (What is Japanese Architecture p.41)
- 10 심모수와 (下諏訪神宮), 하루노미야(春宮)의 제2올바시라(御柱) (Space in Japanese Architecture P.9)
- 11 이즈모(出雲神宮)의 단면과 神의御柱 (Space in Japanese Architecture p.12)



11

참고문헌

1. Japanese Culture by H. Paul Varley(Chap. 1)
2. Space in Japanese Architecture by Mitsuoinoue(Chap. 1)
3. What is Japanese Architecture by Kazuo Nishi and Kazuo Hozumi
4. 日本美術史 監修 山根有三
5. 日本の歴史 by 井上清 (서동만옮김)

註)

- 1) Sources of Japanese Tradition P.8
-류사크 츠노다, 윌리엄 드바리, 도날드 키이니
- 2) 이노우에는 기둥을 초기적인 공간의 인식이라고 본다.
- 3) 日本書記
- 4) 히로(禰)는 밭(약6척)으로 좌우로 벌린 양손 끝사이의 거리로부터 나온 길이다.